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가정교회

- *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 *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심영민 부장
-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 설교 겸손함의 영성 (눅 7: 1-10) 이진수 목사
- 결단찬양 "겸손히 주를 섬길대 " 다함께
-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고 앉으셔도 됩니다



헤이워드 침례교회

24742 La Playa Pla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212

교회 홈페이지: hkb.church

“참된 행복을 누리라” (전도서 6:1-12)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것을 추구하고 얻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죽음 앞에서 내가 헛된 것을 위해 살았구나 하면서 땅을 치며 후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땅에서 그것을 추구해야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후회 없는 인생, 참된 행복을 살기 원합니다.

마지막에 후회할 것인데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을 주고 그것이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것처럼 속이는 첫째가 부와 재산과 명예입니다. 세상은 돈만 있으면 행복해 질 것이라는 생각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해 질 것이고, 내가 충분히 물질과 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더 많은 부와 명예, 높은 자리를 인생의 목표로 삼아 애쓰고 살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속임이 장수와 자녀입니다. 3 절 “사람이 자녀를 백 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세상과 우리로 장수와 건강 그리고 자녀들이 참된 행복과 추구해야 삶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분명 자녀와 건강,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장수와 자녀를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자녀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자녀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성공과 지위와 학위를 위해, 더 나아가 자녀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바로 나의 성공이요 나의 행복이 되고 나의 사명으로 살아가면 결국 후회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참된 행복은 내가 많은 물질, 부요함, 명예, 자녀와 건강을 추구하고 얻음으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진정 주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하면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세상적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불행, 힘들게 하는 일과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도 만족과 평강, 넉넉함과 감사,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참된 행복을 주 안에서 누리며 체험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소식

1. **중보 기도**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 **실시간 새벽예배** - 주중 새벽 예배 (화-토 6 시) 를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새벽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3. **주일 예배 점심** -주일 예배후에 점심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후 마무리 정리를 위한 자원자를 받습니다. 게시판에 원하시는 주일에 이름을 올려 주십시오.
4. **재정보고** - 8월 15일 주일 예배후 재정 중간 보고가 있습니다
5. **부장모임** - 8월 15일 오후 1시에 부장 모임이 있습니다.
6. **초원모임** - 8월 22일 주일 오후에 초원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8/08	8/15	8/22	8/29
대표기도	심영민	김영란	윤완선	유경주
헌화성도	최동규	조정옥		
봉사당번				

예배출석자 및 헌금

예배 출석자	주일예배	
	주일학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예배	
지난주 헌금통계	\$ 4,811.00	

행사 및 모임

6-8 월	야외예배	날짜미정 (주일)
9 월	교회창립 기념예배	9 월 5 일 (주일)

목장현황

목장이름	모임 날짜	모임 장소	인원	다음 장소
소망목장	1 월 22 일	이진수	17	교 회
믿음목장	2 월 23 일	교 회	7	교 회
나눔목장	2 월 23 일	유영민	6	심영민
섬김목장	3 월 05 일	이진수	8	이진수
은혜목장	2 월 09 일	정명희	7	윤완선
신바람목장	1 월 11 일	이진수	6	손다니엘
둥지목장	2 월 02 일	이인호	5	오상균
따스한목장	1 월 11 일	김인수	7	서영희
살롬목장	2 월 21 일	조정욱	7	김창용

*목장모임은 각가정에서 돌아가며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원선교지 안내

목장	목자/목녀	연락처	선교사
소망목장	정병철	510, 415-4156	선교사 (Malaysia)
믿음목장	박종철/박승자	510. 909-8612	유성남 (중국)
나눔목장	유영민/유경애	510. 318-0747	정주환(소망공동체)
섬김목장	이진수/이은진	510. 415-0671	장철호 (미얀마)
은혜목장	윤완선/윤선예	510. 340-1014	나순규 (Indonesia)
신바람목장	유경주	010 6427-2431	박완주/헝가리집시
둥지목장	이화선/이인호	510. 915-5578	K 선교사(Malaysia)
따스한목장	김영란/김인수	510. 468-4720	김정림 (탄자니아)
살롬목장	조현숙/조정욱	510. 396-6952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생명의 삶	13 주
확신의 삶	7 주
새로운 삶	13 주
경건의 삶	13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 주
말씀의 삶	13 주
TEE 성경공부-12 주	12 주

솔직함이 무례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에 대한 특징들이 너무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1-5 에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오는데 3 절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 어떤 일에 대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분을 상하면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자신이 낸 크레딧 카드가 한도초과가 되어 주인이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분노하여서 주인에게 주먹질을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수많은 살인, 폭력, 다툼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으로 올라온 기사나 누군가의 SNS 개인 소셜 미디어에 댓글을 달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댓글의 표현들이 너무나 원색적이고 자극적이며, 비방과 모욕적으로 여과없이 올려지면서 뉴스에 오른 당사자들이 혐오적인 댓글로 인해 상처와 더 나아가 자살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을 여과없이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을 솔직하고 정직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은 여과없이 표현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과 느낌을 순간순간 하고 느끼며 삽니다. 어떤 일이나, 누군가에게 느끼는 어떠한 생각과 느낌을 가감없이 그대로 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그 때, 그 순간 내 생각, 내 감정을 정제하지 않고 그때마다 내 뽀고 행동하면 그 사람, 주위의 사람들, 더 나아가 공동체에 상처와 분열, 신뢰를 깨트리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함이 온유함과 절제, 그리고 하나됨이 되어야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배및모임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0 시 30 분	본당
어린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유치부실
영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영어부예배실
주일성경공부	주일오후 1 시	유년부실
수요기도회	수요일오후 7 시 30 분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화-토오전 6 시	본당
목장모임	매 주	목장별각가정

섬기는분들

담임목사: 이진수	510-415-0671	timjdsn@gmail.com
Youth: Paul & Lena	510-872-2212	Paul.lee@gpmail.org
어린이교회: 이은진	510-415-1696	ejoysong@gmail.com
안수집사: 고헌명, 윤완선		
섬김목장:이진수목사	소망목장: 정병철교사	믿음목장: 박종철목자
나눔목장:유영민목자	따스한목장:김영란목자	은혜목장: 윤완선목자
둥지목장:이화선목자	살롬목장: 조현숙목자	신바람목장: 유경주목자

교회약도

